



1908-1945년

# 근대의학 선구자들 독립운동 헌신

## 19세기, 격변의 시대 근대의학(近代醫學), 개혁의 시대 예고

무당과 주술의 시대에 살면서 천연두(天然痘)에 속수무책 목숨을 잃어야 했던 조선의 백성에게 ‘근대의학(近代醫學)’은 생명의 희망봉이자, 개혁의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였다.

새로운 근대의학을 공부한 선각자들은 가난한 백성과 민족을 위해 인술을 펼쳤고,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정신을 설파했다.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귀국해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이완용 척사 사건에 가담한 오복원·김용문, 철혈단을 조직해 무장투쟁에 나선 나창헌, 신문기사로 투쟁한 유진희, <암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의경, 몽골의 신의로 추앙받는 이태준, 최초의 여성교육감 최정숙 등 근대의학을 공부한 의료계 선구자들이 걸어온 발걸음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이정표가 됐다.

1908년 11월 15일 암울한 일제 강점기. 일본인 의사단체에 맞서기 위해 조선인 의사들이 뜻을 모아 ‘의사연구회’를 창립했다. 의학교 교관(교수)을 역임한 김익남·안상호와 의학교 졸업생인 유병필·최국현·장기무 등이 의사연구회를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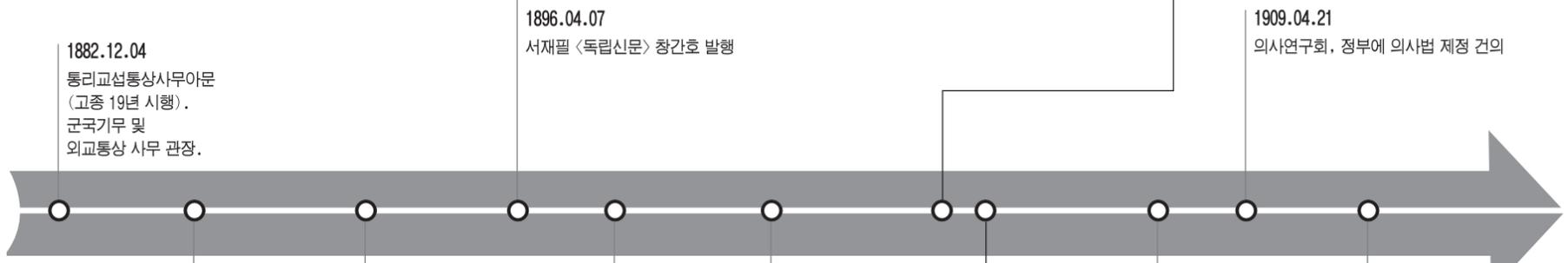
의사연구회는 매달 월례회를 열어 급변하는 국내외 시국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최신 의학 지식을 교환했다. 1909년 4월에는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의사법을 제정, 반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경술국치(庚戌國恥)를 계기로 의사연구회를 비롯해 조선인이 만든 단체를 강제 해산했다. 일제는 한글 교과서를 몰수하고, 국학의 본산인 성균관도 폐쇄했다.



◀새로운 근대의학을 공부한 선각자들은 가난한 백성과 민족을 위해 인술을 펼쳤고,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근대화와 자주독립의 정신을 설파했다. 갑신정변에 가담한 송재(松齋) 서재필 선생은 미국으로 망명,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귀국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 결성에 참여했으며, 계몽활동을 벌였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서 있는 서재필 박사 동상 위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1908년 6월 3일 세브란스병원의학교 1회 졸업생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희영, 홍종은. 가운데 주현숙, 허스트 의료선교사, 박서양. 뒷줄 김필순, 홍석후, 신창희. <사진 출처=세브란스병원> ▼



1882.12.0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고종 19년 시행).  
군국기무 및  
외교통상 사무 관장.

1896.04.07  
서재필 <독립신문> 창간호 발행

1909.04.21  
의사연구회, 정부에 의사법 제정 건의

1885.04.10  
한국 최초  
근대 의료기관  
광혜원(제중원)  
개원

1886.03.29  
제중원  
의학당 설립

1899.03.24  
대한제국 정부,  
의학교 관제 공포

1908.11.15  
의사연구회 창립  
(초대 회장 김익남)

1909.03.01  
의사연구회,  
기근 구호 기금  
모금운동

1910.08.29  
경술국치(庚戌國恥),  
일제 의사연구회  
강제 해산



▲1885년 근대의학의 새 장을 연 재동 제중원 개원 당시 모습. 갑신정변에 가담한 홍영식의 집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자리다. <사진 출처=세브란스병원>



1908.  
대한의원 전경.  
[사진 출처=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1899년 일본 지케이이원의학교를 졸업한 김익남은 일본인 의사단체에 맞서기 위해 1908년 11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사단체인 의사연구회(대한의사협회 전신)를 결성했다. 의사연구회는 의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 의료제도 개선 활동을 펼쳤으나 1909년 5월경 통감부의 탄압으로 해산 당했다. 김익남(왼쪽)은 1900년 의학교 교관에 취임, 후학 양성에 온 힘을 쏟았다. 의학교 1회 졸업생인 김교준(오른쪽)과 함께한 김익남. 1902년경으로 추정된다. ▶

